

보도시점:

2024. 6. 17.(월) 08:30

배포:

2024. 6. 17.(월) 8:30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엔 수도권에 출동

- 국민권익위, 서울 노원구(18일)·동대문구(19일)·경기 화성시(20일) 방문

-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동대문구, 경기도 화성시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서울 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9일 동대문구 경동시장 신관 앤라운지, 20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경기 화성시
일 시	6. 18.(화) 10:00~15:00	6. 19.(수) 10:00~15:00	6. 20.(목) 10:00~15:00
장 소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2층) (동일로174길 27)	경동시장 신관 앤라운지(2층) (고산자로36길 3)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교육장(4층) (향남읍 평2길 7)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에 대해

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재창	(044-200-7311)
		담당자	주무관	박태진	(044-200-7478)

